

7. 6. 2020

한국인의 정체성 -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인의 미디어 정체성: 매체 신뢰의 양극단화

한 규 섭

서울대학교

Marriage	% of Cons. Married to Liberals	12.6%
	% of Liberals Married to Cons.	15.9%
Dating	% of Cons. Dating Liberals	32.43%
	% of Liberals Dating Cons.	29.17%

Source: 2016 MK-Pollab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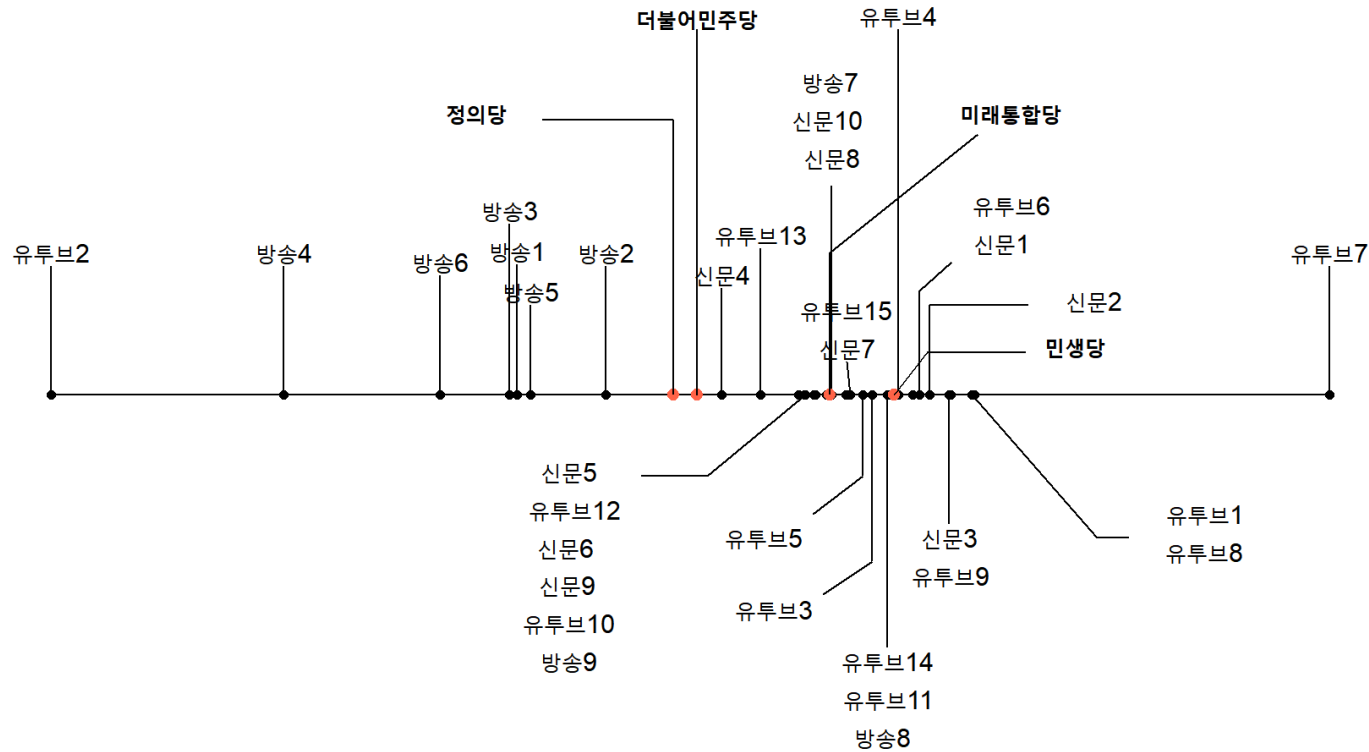
Summary

- 일반 유권자는 양극단화 되었는가?
 - 정치엘리트 - '양극단화'에 이견 없음
 - 일반 유권자는?
 - 미국 사례: 정치적 지지의 '사회정체성' 化 (Iyengar교수 연구팀) - '합리적 설득'이 불가능한 단계에 도달

방송 (지상파 3개사, 종편 4개사, 뉴스전문 채널 2개사)	신문 (10대 일간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기준 15개 채널)
JTBC	경향신문	가로세로연구소
KBS	국민일보	고성국TV
MBC	동아일보	뉴스타파
MBN	문화일보	딴지방송국
SBS	서울신문	배승희변호사
TV조선	세계일보	비디오머그
YTN	조선일보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연합뉴스TV 채널A	중앙일보	스브스뉴스
	한겨레신문	신의한수
	한국일보	신인균의국방TV
		엠빅뉴스
		이봉규TV
		팩트TV NEWS
		편앤드마이크TV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Summary

- 신뢰도 측정 (5점 척도)
 - 9개 방송사 (지상파 3곳, 종합편성채널 4곳, 뉴스전문채널 2곳)
 - 10대 일간지
 - 15개 유튜브 채널(구독자수 기준)



Y2	B4	B6	B3	B1	B5	B2	N4	Y13	N5	Y12	N6	N9	Y10	B9	B7	N10	N8	Y15	N7	Y5	Y3	Y14	Y11	B8	Y4	Y6	N1	N2	N3	Y9	Y1	Y8	Y7
-2.076	-1.369	-0.895	-0.682	-0.66	-0.619	-0.391	-0.037	0.079	0.196	0.215	0.217	0.242	0.246	0.246	0.281	0.294	0.296	0.339	0.352	0.39	0.42	0.467	0.469	0.47	0.5	0.543	0.562	0.594	0.652	0.658	0.722	0.73	1.812

Summary

- 문항반응모델 (item response theory: IRT) 추정값
 - 매체 신뢰의 양극단화 > 지지정당 양극단화
 - 양극단에 유튜브 채널 2곳 (유튜브2, 유튜브7)
 - 왼쪽부터 지상파 + 일부 종편 채널 > 뉴스전문채널 > 진보성향 일간지 > 유튜브 + 보수일간지 + 일부 종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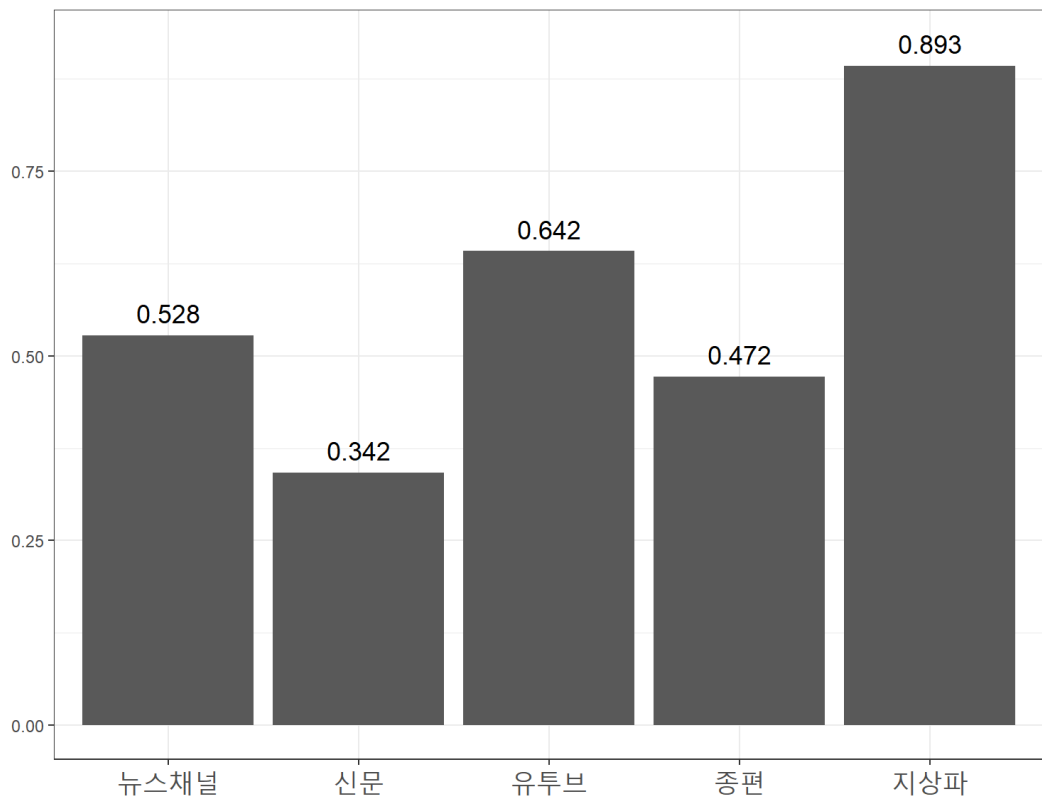


	b	(s.e.)
상수	-0.029	(0.158)
이념	0.019	(0.020)
10-20대	-0.008	(0.107)
30대	-0.232	(0.109) *
40대	-0.176	(0.105) +
50대	-0.051	(0.101)
70-80대	0.329	(0.143) *
보수정당	0.275	(0.101) **
진보정당	-0.045	(0.078)
광주/전남	0.066	(0.134)
대구/경북	0.082	(0.113)
부산/울산/경남	0.144	(0.096)
서울/경기/인천	0.114	(0.082)
전북/제주	0.014	(0.152)
남성	-0.198	(0.063) **

Note. Cell entries are OLS Estimates. + $p < .1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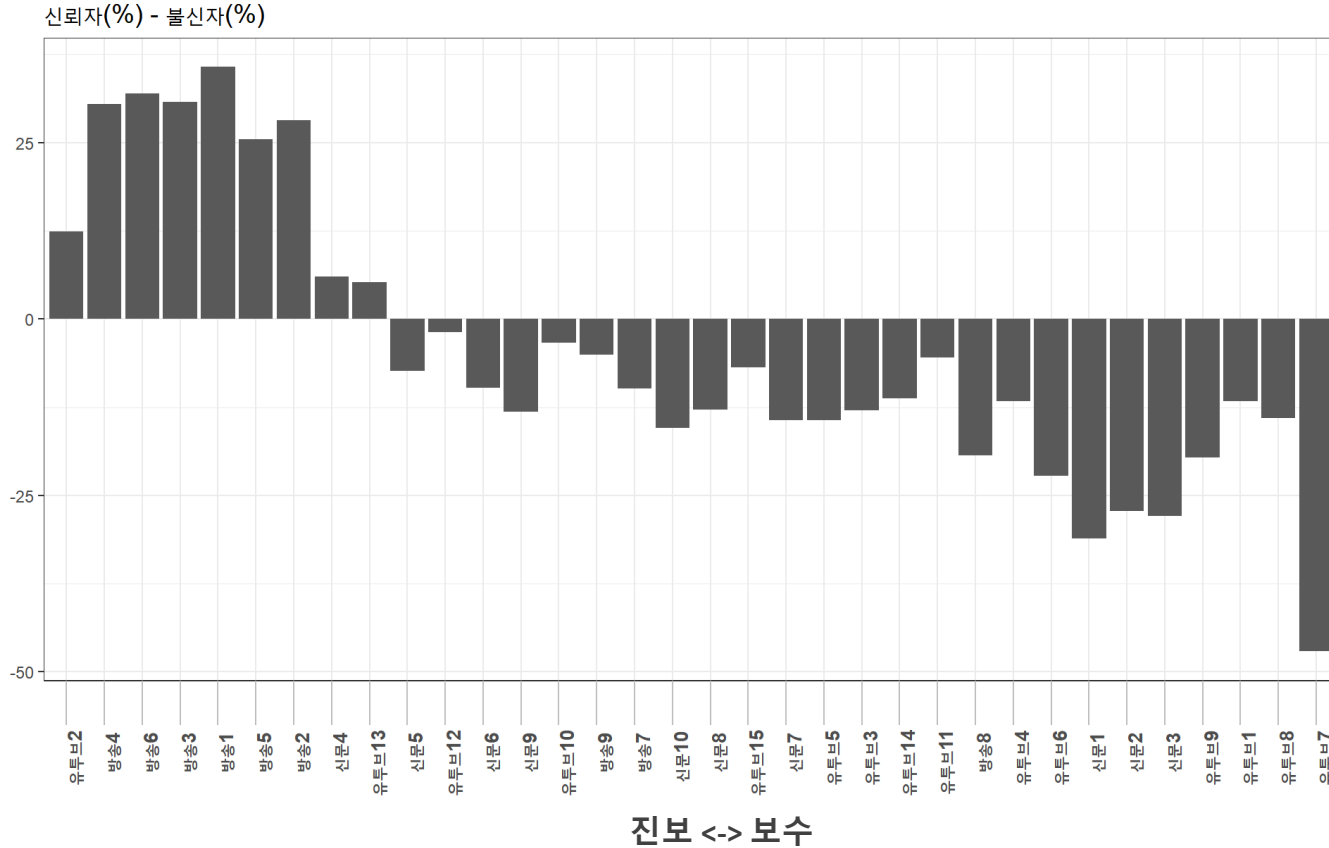
Summary

- 미디어 정체성 예측
 - 한국 사회 갈등의 다양한 축(지지 정당, 세대, 성별등)이 미디어 정체성 예측
 -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신뢰의 경향이 '반향판(echo chambe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



Summary

- 신뢰층 양극단화: 지상파 > 유튜브 > 뉴스채널 > 종편 > 신문
 - 지상파 신뢰층(0.893)이 가장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채로움.
 - 유튜브(0.642)가 다음이었고 뉴스전문채널(0.528)과 종편(0.472)이 비슷한 정도로 신뢰층이 집중된 현상을 보임.
 - 반면 신문(0.342)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거나 다양한 신뢰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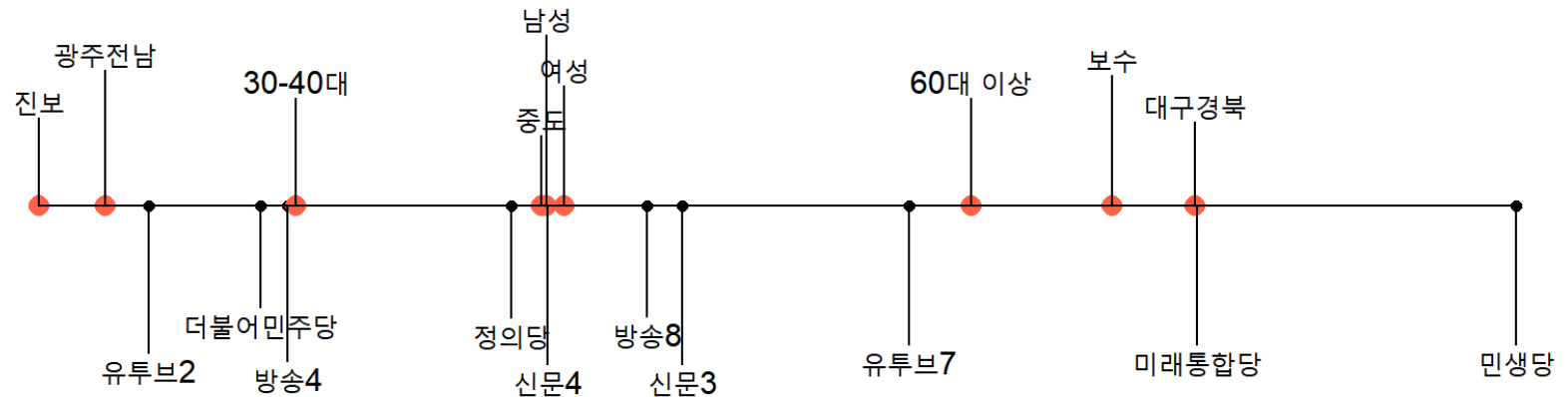
- 신뢰(%) - 불신(%)
 - 이념 스펙트럼의 왼쪽에 위치하는 매체들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뢰가 낮아짐.
 - 총선 민심에서도 나타났듯이 진보쪽으로 매우 치우친 평가. 따라서 지상파가 반드시 일부 극단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매체 유형별로 보면 뉴스전문 채널 > 지상파 > 신문 > 종편 > 유튜브 -> 신문 순의 신뢰도. 유튜브중 유일하게 가장 진보 유권자 집중도가 강했던 유튜브2(xxx)만이 유일하게 신뢰>불신뢰. 신문중에서도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된 신문 4만이 신뢰 > 불신뢰. 나머지 모든 신문, 유튜브, 종편들이 모두 신뢰 < 불신뢰.

다음 각각의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까우십니까?

- (1) 국가보안법은 현행대로 유지 vs. 개정 또는 폐지
- (2) 복지보다 경제성장 vs. 경제성장보다 복지
- (3) 공기업은 민영화 vs. 공기업은 확대
- (4)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 vs.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
- (5) 집회 및 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불허 vs.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허용
- (6) 사형제 유지 vs. 사형제 폐지
- (7)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 vs.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 우선시
- (8)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시기상조 vs.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음.
- (9) 일자리정책에 있어 정년연장이 우선 vs. 일자리정책에 있어 청년 취업이 우선
- (10) 미투 운동은 여성에 대한 반감을 야기 vs. 미투 운동은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
- (11)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필요 vs.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축소
- (12) 택시업체 타격을 주더라도 타다 같은 혁신기업을 육성 vs. 택시업체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규제

Summary

- 정책 입장에 대한 설문 12개
- IRT: 정책 이념 성향 (Ideal Point) 추정



Summary

- 정책 이념 성향 (Ideal Point) 차이
 - 지정당 (0.536) / 지역간 차이 (0.465) / 이념 (0.458) > 유튜브(0.325) > 방송 (0.154) > 신문 (0.058)
 - 매체에 대한 신뢰 자체는 매우 양극단화 되어 있으나 실제 정책 이념의 차이는 크지 않음. 특히 가장 진보적인 신문과 가장 보수적인 신문의 신뢰층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 가장 진보적인 유튜브와 보수적인 유튜브 매체 사이의 차이도 기존의 갈등의 축인 정당, 지역, 이념성향의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음.



	“Left”	“Right”	Difference
이념 (진보 vs. 보수)	-0.220	0.238	0.458
지역 (광주/전남 vs. 대구/경북)	-0.192	0.273	0.465
정당 (더민주 vs. 민생)	-0.126	0.410	0.536
정당 (더민주 vs. 통합)	-0.126	0.274	0.400
세대 (3~40대 vs. 60대이상)	-0.111	0.177	0.288
성별 (여성 vs. 남성)	0.004	-0.004	0.007
매체 (유튜브2 vs. 유튜브7)	-0.173	0.151	0.325
방송 (방송4 vs. 방송8)	-0.114	0.039	0.154
신문 (신문4 vs. 신문3)	-0.003	0.054	0.058

Summary

- 합의
 - 유권자들이 각 언론 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는 매우 양극단화 되어 있으나 이들간의 정책 입장의 차이는 정당/지역/이념등의 차이에 비하면 크지 않음.
 - 이는 매체에 대한 신뢰가 소위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처럼 다분히 감정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b	(s.e.)
상수	-0.024	(0.158)
이념	0.016	(0.020)
10-20대	0.014	(0.108)
30대	-0.214	(0.109) +
40대	-0.165	(0.105)
50대	-0.053	(0.101)
70-80대	0.329	(0.143) *
보수정당	0.269	(0.101) **
진보정당	-0.038	(0.078)
광주/전남	0.073	(0.134)
대구/경북	0.068	(0.113)
부산/울산/경남	0.137	(0.096)
서울/경기/인천	0.111	(0.082)
전북/제주	0.002	(0.152)
남성	-0.198	(0.063) **
정책 선호	0.073	(0.047)

Note. Cell entries are OLS Estimates. + $p < .10$; * $p < .05$; ** $p < .01$

Summary

- 문항반응모델 (item response theory: IRT) 미디어 정체성 예측
 - 정책 선호는 유의한 상관관계 보이지 않음.
 - 이는 미디어 정체성이 해당 매체의 정책 선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선호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